

『童蒙先習諺解』의 서지와 언어

- 7행 15자본과 9행 16자본의 언해 양식 비교 -

안 소 진 *

I. 서 론

『동몽선습언해』는 한문 초보자를 위한 학습서였던 『동몽선습』을 언해한 책이다. 7행 15자본, 10행 16자본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직역에 가까운 언해를 하고 있어 경서 언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후자는 한자나 한자어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의역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본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두 종류의 『동몽선습언해』를 비교하여 이러한 언해 양식상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동몽선습언해』 가운데 「奎 1535, 3925」는 7행 15자본이고, 「一簑 古 179 B149d」는 10행 16자본이다. 이 중 「奎 1535」, 「一簑 古 179 B149d」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언해본의 한문 원문 확인을 위해서는 규장각 소장본 『동몽선습』 「奎 233」을 참고하였다. 이 책은 차용한자로 구결이 달린 한문본으로 언해본 「奎 1535」의 저본으로 추정된다.¹⁾ 본고의 연구 대상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자료

『童蒙先習諺解』 7행 15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奎 1535」
마이크로필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후술하겠지만 『동몽선습』에도 7행 15자본, 9행 16자본 두 가지가 있다.

『童蒙先習諺解』 10행 16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一簣古 179 B149d」
마이크로필름
『童蒙先習』 7행 15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奎 233」

安秉禧(1992)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이러한 비교 작업은 중세어의 한글 문헌이 갖는 성격을 이해, 즉 번역 양식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童蒙先習』, 『童蒙先習諺解』의 체재 및 서지

두 『동몽선습언해』의 양식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언해 대상이 된 『동몽선습』의 체재 및 서지, 『동몽선습언해』의 체재 및 서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童蒙先習』의 체재 및 서지

『동몽선습』은 명종 때 문신이며 유학자인 박세무가 서당에 처음 입학한 학동을 위하여 지은 책이다. 대개 먼저 천자문을 배운 다음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였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오류를 짧게 이야기한 뒤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朋友有信)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삼황오제에서부터 명나라의 역대 사실(史實)과 우리나라의 단군에서부터 조선왕조까지의 역사를 약술하였다. 이어서 총론(總論)이 있는데 총론에서는 오류에 대한 일반적인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학문에 힘써야 함을 말하고 태극음양(太極陰陽), 이기(理氣)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유교가 발달해 온 역사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단군, 위만, 삼한, 신라, 고구려, 백제, 후백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시조와 도읍지, 각각의 나라가 유지된 햇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내용은 간결하나 조선시대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중요시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이들이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자체와 간명한 문구로 되어 있다. 불분권 1책(不分卷 1冊)이고 초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동몽선습』은 7행 15자본과 9행 16자본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동몽선습』 소장 내역 및 각각의 특징

① 7행 15자본 28책 소장

(a) 1819(순조 19년)에 간행된 판에서 인출된 것 25책

표제지 1장, 어제서(御製序) 3장, 본문 17장, 송시열 발문 2장으로 되어 있음. 표제지에 ‘己卯新刊 春坊藏板’이라는 기록을 보아 이 책이 기묘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음. 규장각에 같은 양식의 표제지를 가진 『全韻玉篇』이 소장되어 있어 여기서의 기묘년을 1819년(순조 19년)으로 추정할 수 있음.

(b) 3책(奎 1534, 2947, 2949)은 1819년 판의 후대 복각본
어미의 화문 모양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음.

② 9행 16자본 1책 소장

간행연대 추정이 어려움.

본고에서 다루는 규장각 소장 『동몽선습』 「奎 233」은 1819년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7행 15자본 25책 중 한 권이다. 『동몽선습』 「奎 233」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동몽선습』 「奎 233」의 서지 사항

童蒙先習(奎233), 朴世茂(朝鮮)著
1冊(23張) 木板本 37.1×24.1cm
四周雙邊 半郭: 25.2×17.7cm
有界 7行 15字 注雙行
版心: 上下三葉花紋魚尾

이 책은 앞표지 안쪽에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내사본(內賜本)이다(부록 <사진 1> 참조). 본문 첫 장에는 경성제국대학도서관, 조선총독부, 서울대학교 장서인이 찍혀 있다(부록 <사진 2> 참조). 전 권 총 23장으로 내지 1장,

어제서 3장, 본문 17장, 송시열 발문 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제서, 본문, 송시열 발문은 각각 판심제(版心題)가 다르고, 장차(張次)도 따로 매겨져 있다. 어제서의 판심제는 ‘御製童蒙先習序’, 본문은 ‘童蒙先習’, 송시열 발문은 ‘童蒙先習序’이다(부록 <사진 3> 참조). 어제서에는 광곽 밖으로 내어 쓴 부분이 있다(부록 <사진 4> 참조). 본문 16장 앞면에 “北京新羅時設行殿於原州謂之北京”이라는 난상주(欄上註)가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부록 <사진 5> 참조). ‘童蒙先習’이라고 쓰인 서근제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에는 차용 한자 구결이 달려 있다. 구결자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4) 『동몽선습』 「奎 233」의 구결자 목록

可(가)	巨(거)	古(고)	果(과)	那(나)	奴(노/로)
尼(니)	飛(늑)	多(다)	大(대)	加(더)	底(더)
哉(더)	等(든)	斗(두)	代(더)	羅(라)	驢(러)
里(리)	絲(며)	面(면)	乇(入)	沙(사)	舍(샤)
時(시)	申(신)	阿(아)	厓(애)	也(야)	於(어)
亦(여)	五(오)	臥(와)	隱(은)	乙(을/늘)	矣(의)
是(이)	伊(이)	印(인)	乎(호)	屮(히)	爲(히)

2. 『童蒙先習諺解』의 체재 및 서지

『동몽선습언해』는 『동몽선습』을 언해한 것이므로 오류에 대해 이야기한 뒤 총론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동몽선습』과 다르지 않다. 어제서와 송시열 발문은 모두 언해되어 있지 않다.

체재 면에서 두 언해본에 차이가 있는데, 7행 15자본은 원문 없이 언해만을 싣고 있으나 10행 16자본은 원문에 일일이 한자음을 달고 언해는 원문보다 한 칸 낮게 쌍행으로 처리하였다. 10행 16자본은 언해에서는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신 쌍행으로 주가 많이 첨가되어 있다.

(5) 가. 원문: 昧三從之道爲古有七去之惡則家道伊索矣里羅

나. 언해: ① 세 가지 존는 道도를 昧미하고 닐곱 가지 거거하는 惡악이

이시면 짐 道도 | 索索히리라 <7행 15자본 7a>

- ② 세 가지 좇는 도(집의 이실 제 아버를 좇고 식집 가매 지아비를 좇고 지아비 죽으면 으들을 좇는 것)를 못 알고 닐급 가지 버리는 사오나옴(부모의 불순하면 버리고 무즈하면 버리고 음란하면 버리고 투귀하면 버리고 악질 이시면 버리고 말 만흐면 버리고 도적하기하면 버리는 것)이시면 짐 되 삭(산란튼 말)히리라 <10행 16자본 7a>

(괄호 안이 쌍행으로 처리된 주 부분임)

『동몽선습언해』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래 두 자료는 원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규장각 목록 검색을 통해 서지사항을 확인하였다. 10행 16자본의 경우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語學篇 目錄·書誌』와 규장각 홈페이지의 검색 목록에도 서지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마이크로필름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만 기입하였다.

(6) 가. 『童蒙先習諺解』 7행 15자본(奎 1535)의 서지사항

童蒙先習諺解(奎1535), 解者未詳
 1冊(32張) 木板本 33.5×22.2cm
 四周雙邊 半郭: 25.4×18.1cm
 有界 7行 1行 15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나. 『童蒙先習諺解』 10행 16자본(一簣 古 179 B149d)의 서지사항

童蒙先習諺解(一簣 古 179 B149d), 解者未詳
 1冊(32張) 木板本
 四周雙邊
 有界 10行 1行 16字

III. 두 언해본의 언해 양식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동몽선습언해』의 두 언해본은 언해 양식에 차이를 보인다. 7행 15자본은 직역에 가까운 데 반해 10행 16자본은 상대적으로 의역에 가깝다. 양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언어 사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7행 15자본은 문면에 한자를 많이 노출시키는 데 비해 10행 16자

본은 언해 부분에는 한자를 전혀 노출하지 않는다. 둘째, 7행 15자본에는 협주가 없지만 10행 16자본은 언해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에 협주를 달아 그 의미를 설명한다. 셋째, 10행 16자본은 한문 원문에 없는 말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7행 15자본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택하고 있다.

1. 한자의 문면 노출

7행 15자본은 문면에 한자를 많이 노출하지만 10행 16자본은 언해 부분에 한자를 노출하지 않는다. 10행 16자본에서 한자를 노출하지 않고 원문을 언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한자의 음만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7행 15자본의 1음절 한자를 2음절 한자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2음절 한자어를 사용할 때에도 한자를 문면에 노출시키지는 않는다.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10행 16자본이 의역의 모습을 보이는 데 기여한다.

아래 예들은 7행 15자본에서 한자와 음이 표기된 것을 10행 16자본에서는 우리말로 음만 표시한 것이다. 언해 ①은 7행 15자본이고 ②는 10행 16자본이다.

(7) 가. 원문: 天地之間萬物之衆匪唯人伊最貴爲尼

나. 언해: ① 하늘과 싸 스이에 萬만物물이 만흔디 오직 사름이 ㄱ장 貴귀하니 <1a>

② 하늘과 싸 스이에 만물이 만흔디 오직 사름이 ㄱ장 귀하니 <1b>

(8) 가. 원문: 雖然是那天下匪無不是底父母羅

나. 언해: ① 비록 그러하나 天턴下하에 올티 아닌 父부母모 | 업슨디라 <3a>

② 비록 그러하나 턴하에 올티 아닌 부모 | 업슨디라 <3a>

(9) 가. 원문: 孔子伊曰

나. 언해: ① 孔공子즈 | 곶으샤디 <3b>

② 공지 곶으샤디 <3b>

(10) 가. 원문: 君臣隱天地之分是羅

나. 이해: ① 님금과 신하는 하늘과 사히 분분이라 <4a>

② 님금과 신하는 하늘과 사히 분의라 <4b>

(11) 가. 원문: 尊貴之使卑賤果卑賤之使尊貴隱天地之常經是

나. 이해: ① 높고 귀히 니 놓고 賤천히 니를 브림과 놓고 賤천히 니
높고 귀히 니를 셴김은 하늘과 사히 던던히 경經이며
<4a>

② 높고 귀히 이 낮고 천히 이를 브림과 낮고 천히 이 높고
귀히 이를 셴김은 하늘과 사히 덜덜히 경(법 ㄱ툐 말)이며
<4b>

(12) 가. 원문: 不可與共治天下國家也尼羅

나. 이해: ① 可가히 더브러 흥가지로 天天下하와 國국가가를 다스리디
못하리라 <5a>

② 가히 더브러 흥가지로 던하와 나라를 다스리디 못하리라
<5a>

(13) 가. 원문: 是故奴娶妻乎代不娶同姓爲

나. 이해: ① 이런 故고로 妻처를 娶취호디 同동姓성을 娶취티 아니하며
<6a>

② 이런 고로 처를 취(장가 드다 말)호디 동성을 취티 아니하
며 <6b>

(14) 가. 원문: 男子隱居外而不言內爲古婦人隱居內而不言外爲飛尼

나. 이해: ① 男남子즈는 밖기 이셔 안흥 니르디 아니하고 婦부人인은 안
히 이셔 밖을 니르디 아니하느니 <6b>

② 남즈는 밖기 이셔 안흥 말하디 아니하고 부인은 안히 이셔
밖을 말하디 아니하느니 <6b>

(15) 가. 원문: 有過於時等諫而不逆爲古

나. 이해: ① 허물이 잇거시든 諫간호디 거스리디 아니하고 <14a>

② 허물이 잇거시든 간호디 거스리디 아니하고 <14b>

아래 예들은 7행 15자본의 한자어를 10행 16자본에서 고유어로 풀어 언
해한 예이다.

(16) 가. 원문: 所貴乎人隱以其有五倫也羅

나. 이해: ① 사름을 귀히 너기는 바는 그 五倫倫이 이시모로뻬라
<1a>

② 사름을 귀히 너기는 바는 그 다섯 가지 인륜이 이시모로뻬
라 <1b>

(17) 가. 원문: 夫婦有別爲婦

- 나. 이해: ① 夫부와 婦부 | 別별이 이시며 <1a~b>
 ② 지아비와 지어미 別별이 이시며 <1b>
- (18) 가. 원문: 是古奴教之以義方爲也弗納於邪爲_爲
 나. 이해: ① 이런 故고로 義의엿 方방으로써 ㄹ러쳐 邪샤흔 되 드리디
 아니흐며 <2b>
 ② 이런 故고로 올흔 방소로써 ㄹ러쳐 간샤한 되 드리디 아니흐
 며 <3a>
- (19) 가. 원문: 不可與共治天下國家也尼羅
 나. 이해: ① 可가히 더브러 ㅎ가지로 天天下하와 國國家가를 다스리디
 못하리라 <5a>
 ② 가히 더브러 ㅎ가지로 天하와 나라를 다스리디 못하리라
 <5a>
- (20) 가. 원문: 是故奴君者隱體元而發號施令者也_也
 나. 이해: ① 이런 故고로 님금은 元원을 體테하야 號호를 發발하며 령
 을 베프미오 <4b>
 ② 이런 故고로 님금은 원(하늘에 봄이 오사?에 어질미 오?에 는
 머리라)을 木바다 호를 발하며 령을 베프는 이오 <4b>
- (21) 가. 원문: 蓋宗族鄉黨皆有長幼爲尼不可紊也羅
 나. 이해: ① 대개 宗宗族족과 鄉향黨당에 다 얼운과 어린이 이시니 可가
 히 紊문티 木木디라 <8b>
 ② 대개 宗宗족(겨레)과 黨당(마을)에 다 얼운과 어린이 이시니 가
 히 어즐어히 木木디라 <8b>
- (22) 가. 원문: 夫婦有別
 나. 이해: ① 夫부婦부有有別別 夫부와 婦부 | 別이 이심이라 <5b>
 ② 夫부婦부有有別別 지아비와 지어미 別별이 이심이라 <5a>
- (23) 가. 원문: 昧三從之道爲古有七去之惡則家道伊索矣里羅
 나. 이해: ① 세 가지 좃는 道도를 昧미하호 닐곱 가지 去거하흔 惡악이
 이시면 집 道도 | 索삭하리라 <7a>
 ② 세 가지 좃는 도(집의 이실 제 아비를 좃고 ㅅ집 가매 지아
 비를 좃고 지아비 죽으면 ㅅ들을 좃는 것)를 木木고 닐곱
 가지 버리는 사오나옴(부모의 불순하하면 버리고 무즈하면
 버리고 음란하하면 버리고 투기하면 버리고 악질 이시면 버
 리고 말 만흐면 버리고 도적하기하면 버리는 것)이시면 ㅅ
 되 ㅅ(산란튼 말)하리라 <7a>
- (24) 가. 원문: 孔子伊曰不信乎朋友伊而不獲乎上矣里羅
 나. 이해: ① 孔공子즈 | 可으샤티 別의게 木木디 못하면 우희 獲획디
 木木디라 <12b>
 ② 公公지 可으샤티 朋우의게 木木디 못하면 우(웃사름)희 木木디

못 흐리라 <11b>

(25) 가. 원문: 雖然是那五君不能乙謂之賊是尼昔者匡商紂伊暴虐是於乙比干伊諫而死爲
尼忠臣之節伊於斯匡盡矣奴多

나. 언해: ① 비록 그러하나 내 님금이 능히 못 흐리라 흠을 닐오디 꾀
적이니 네 商상 紂류 | 暴포虐학 흐기늘 比비干간이 諫간
다가 죽으니 忠통臣신의 節절이 예 극진 하도다 <5a~5b>

② 비록 그러하나 내 님금이 능히 못 흐리라 흠을 닐오디 적이
니 태상 나라 꺾 모딜고 사오납거늘 비간이 간 하다가 죽으
니 충신의 절이 이에 극진 하도다 <5a>

(26) 가. 원문: 昔者匡司馬光伊與其兄佰康之奴友愛尤篤敬之如嚴父爲古保之如嬰兒爲
尼兄弟之道伊當如是也尼羅

나. 언해: ① 네 司司馬마光광이 그 兄형 佰백康강으로 더브러 스랑흠을
더욱 독가이 하야 公경호를 嚴엄호 아비갠티 하고 保보호
를 어린 아회갠티 하니 兄형弟데의 道도 | 맘당히 이러툃
홀디니라 <9b~10a>

② 네 스마광이 그 형 빅강으로 더브러 우히흠을 더욱 도타이
하야 公경호를 엄호 아미갠티 하고 保보호를 어린 옹호
티 하니 형과 아오의 되 맘당이 이러툃 홀디니라 <9a>

(27) 가. 원문: 問衣燠寒爲淋問何食飲爲淋冬溫而夏清爲淋昏定而晨星爲淋

나. 언해: ① 오시 더우며 치우를 못즈오며 프어슬 食식하며 飲음호를 못
즈오며 겨울이어든 溫온하고 녀름이어든 淸정하며 어울미어
든 定딩하며 새베어든 省省하며 <13b>

② 옷시 더우며 치우를 못즈오며 프어슬 자시며 마시를 못즈오
며 겨울이어든 드스케 하고 녀름이어든 서늘케 하며 어둡거
든 덩(사리를 어디로 흠을 못즈와 덩타 말)하며 새베어든
성(주므심을 못즈와 슬피다 말)하며 <14b>

(28) 가. 원문: 博奕好飲酒爲也不顧父之母養爲淋

나. 언해: ① 博박奕혁하고 술 먹기를 도히 녀겨 父부母모의 공양을 도라
보디 아니하며 <15a>

② 장기와 바둑두?하고 술 마시기를 도히 녀겨 부모의 봉양을
도라보디 아니하며 <15a>

(29) 가. 원문: 苟能孝於其親則推之於君臣也臥夫婦也臥長幼也臥朋友也臥何往而不可哉里五

나. 언해: ① 진실로 능히 그 아버지의 효도하면 밀워 君군臣신에와 夫
부婦부에와 長장幼幼에와 朋朋友友에 어디가 可가티 아니하
리오 <16a>

② 진실로 능히 그 아버지의 효도하면 밀워여 님금과 신하에와
지아비과 지어미에와 얼운과 어린이에와 벗과 벗에 어디가

가티 아니흐리오 <15b>

간혹 7행 15자본에서 고유어로 언해한 것을 10행 16자본에서는 한자어로 언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예는 매우 드물다.

- (30) 가. 원문: 生而育之爲古愛而教之爲恭奉而承之爲古孝而養之爲飛尼
 나. 언해: ① 나하 기르고 스랑^ㅎ야 마르치며 받드러 닐고 효도^ㅎ야 치
 느니 <2b>
 ② 나하 기르고 스랑^ㅎ야 마르치며 받드러 닐고 효도^ㅎ야 불
 양^ㅎ느니 <3a>
- (31) 가. 원문: 昔者^ㄱ司馬光伊與其兄佰康^ㄴ之^ㄷ友愛尤篤敬之如嚴父爲古保之如嬰兒爲
 尼兄弟之道伊當如是也尼羅
 나. 언해: ① 네 司스馬마光광이 그 兄형 佰백康강으로 더브러 스랑^ㅎ흠을
 더욱 독가이 ㅎ야 공경^ㅎ믈 嚴엄^ㅎ흔 아비^ㄱ근티 ㅎ고 保보^ㅎㅎ
믈 어린 아회^ㄱ근티 ㅎ니 兄형弟데의 道도 | 만당히 이러^ㄷ
홀디니라 <9b~10a>
 ② 네 스마광이 그 형 빅강으로 더브러 우회^ㅎ흠을 더욱 도타이
ㅎ야 공경^ㅎ믈 엄^ㅎ흔 아미^ㄱ긋티 ㅎ고 보호^ㅎㅎ을 어린 우회^ㄱ
티 ㅎ니 형과 아으의 되^ㄷ맛당이 이러^ㄷ 홀디니라 <9a>
- (32) 가. 원문: 孔子伊曰不信乎朋友伊不獲乎上矣里羅
 나. 언해: ① 孔공자 | 골으샤^ㄷ 뉘의 게 믿^ㄷ브디 못^ㅎ면 우회 獲^ㄷ
믈^ㅎ리라 <12b>
 ② 공^ㄱ지 골으샤^ㄷ 뉘의 게 밋^ㄷ브디 못^ㅎ면 우(웃사^ㄷ름) 회 얻^ㄷ
믈^ㅎ리라 <11b>

아래 예들은 7행 15자본에서는 1음절 한자로 설명한 부분을 10행 16자본에서는 2음절 한자어로 풀어서 설명한 예이다. 1음절 단어를 2음절로 늘리는 방식으로 설명력을 높였다. 2음절 한자어를 사용할 때에도 한자를 문면에 노출시키지는 않는다.

- (33) 가. 원문: 夫婦有別爲恭
 나. 언해: ① 夫부와 婦부 | 뉘^ㄷ별이 이시^ㄷ며 <1a~b>
 ② 지아비와 지어미 뉘^ㄷ별이 이시^ㄷ며 <1b>
- (34) 가. 원문: 是古奴教之以義方爲也弗納於邪爲恭
 나. 언해: ① 이런 故고로 義의 옛 方방으로^ㄷ 뉘^ㄷ 차 邪샤^ㄷ 흐 디 드리^ㄷ

아니 하며 <2b>

- ② 이런 고로 올흔 방소로써 ㄹ러쳐 간사한 되 드리디 아니하며 <3a>

(35) 가. 원문: 益者伊三友五損者伊三友尼

나. 언해: ① 더으 니 세 가진 변이오 해로오 니 세 가진 변이니 <10b~11a>

- ② 유의흔 이 세 가짓 벗이오 손해흔 이 세 가짓 벗이니 <10b~11a>

(36) 가. 원문: 昔者匡司馬光伊與其兄佰康之叔友愛尤篤敬之如嚴父爲古保之如嬰兒爲尼兄弟之道伊當如是也尼羅

나. 언해: ① 네 司馬마광이 그 兄형 佰康강으로 더브러 스랑함을 더욱 독가이 하야 공경함을 嚴엄흔 아미근티 하고 保보호함을 어린 아회근티 하니 兄형弟데의 道도 | 만당히 이러툃 홀디니라 <9b~10a>

- ② 네 스마광이 그 형 빅강으로 더브러 우희함을 더욱 도타이 하야 공경함을 엄흔 아미근티 하고 보보호함을 어린 으희근티 하니 형과 아으의 되 만당이 이러툃 홀디니라 <9a>

이 외에 7행 15자본에서 고유어로 언해한 것을 10행 16자본에서 좀더 쉬운 다른 고유어로 언해한 예도 드물게 보인다.

(37) 가. 원문: 男子隱居外而不言內爲古婦人隱居內而不言外爲飛尼

나. 언해: ① 남즈는 밧기 이셔 안홀 니르디 아니하고 婦부人인은 안히 이셔 밧쓸 니르디 아니하느니 <6b>

- ② 남즈는 밧기 이셔 안홀 말하디 아니하고 부인은 안히 이셔 밧쓸 말하디 아니하느니 <6b>

2. 협주의 유무

10행 16자본은 한자를 드러내지 않되 한자 없이 알기 어려운 것은 협주를 달아 처리하였다. 원 한자를 쓰지 않고 음만 기입하게 되면서 오히려 의미 파악이 어려워진 단어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이 협주를 단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38) 가. 원문: 孔子伊曰五刑之屬伊三千是奴代而罪伊莫大於不孝羅爲時尼羅

나. 언해: ① 孔夫子즈ㅣ 굴으샤디 다섯 가지 형벌의 류ㅣ 삼삼千천이로 디 罪죄ㅣ 불효에서 큰이 업다 하시니라 <3b>

② 공치 굴으샤디 다섯 가지 형벌(墨墨 즈즈호는 것 劓월 발 쓴는 것 劓의 코 버히는 것 剕비 무릅 싸 썩이는 것 宮궁 불 ?이는 것 大대辟辟 죽이는 것)뤼 삼천이로디 죄 불효에 서 큰이 업다 하시니라 <3b>

(39) 가. 원문: 尊貴之使卑賤果卑賤之使尊貴隱天地之常經是赫

나. 언해: ① 높고 귀귀하니 높고 賤천하니 브림과 높고 賤천하니 높고 귀귀하니를 섬김은 하늘과 사히 덜덜흔 經經이며 <4a>

② 높고 귀귀이 낮고 천흔 이를 브림과 낮고 천흔이 높고 귀귀이를 섬김은 하늘과 사히 덜덜흔 經(법갓튼말)이며 <4b>

(40) 가. 원문: 是故奴君者隱體元而發號施令者也五臣者隱調元而陳善閉邪者也羅

나. 언해: ① 이런 故고로 님금은 元원을 體테하야 號호를 發발하며 승령을 베프미오 신하는 元원을 調도하야 善선을 베프며 邪샤를 막는거시라 <4b>

② 이런 고로 님금은 元(하늘에 봄이 오사?에 어질미 오?에 는 머리라)을 몸 바다 호를 발하며 령을 베프는 이오 신하는 元원을 도화하야 어진 거슬 베프며 간샤흔 거슬 막는 자라 <4b>

(41) 가. 원문: 是故奴娶妻乎代不娶同姓爲赫

나. 언해: ① 이런 故고로 妻처를 娶취호디 同동성을 娶취티 아니하며 <6a>

② 이런 고로 처를 취(장가 드다 말)호디 동성을 취티 아니하며 <6b>

(42) 가. 원문: 昧三從之道爲古有七去之惡則家道伊索矣羅

나. 언해: ① 세 가지 좃는 道도를 昧미호고 닐곱 가지 去거호는 惡악이 이시면 집 道도ㅣ 索삭호리라 <7a>

② 세 가지 좃는 道(집의 이실 제 아비를 좃고 夕집 가매 지아비를 좃고 지아비 죽으면 舅을 좃는 것)를 못 알고 닐곱 가지 去거는 사오나옴(부모의 불순하면 버리고 무즈하면 버리고 음란하면 버리고 투기하면 버리고 악질 이시면 버리고 말 만하면 버리고 도적하기하면 버리는 것)이시면 집 夕(산란튼 말)호리라 <7a>

(43) 가. 원문: 蓋宗族鄉黨皆有長幼爲尼不可紊也羅

나. 언해: ① 대개 宗宗族족과 鄉향黨당에 다 얼운과 어린이 이시니 피가 히 紊문티 흔홀디라 <8b>

② 대개 宗宗族(겨레)과 鄉향(마을)에 다 얼운과 어린이 이시니

가히 어즐어히 못홀디라 <8b>

(44) 가. 원문: 孔子伊曰不信乎朋友伊面不獲乎上矣里羅

나. 언해: ① 孔공자즈 | 곶으샤디 변의게 믿브디 못흐면 우희 獲획디 못홀리라 <12b>

② 공자 곶으샤디 붕우의게 밋브디 못흐면 우(웃사름)희 얻디 못홀리라 <11b>

(45) 가. 원문: 問衣燠寒爲淋問何食飲爲淋冬溫而夏清爲淋昏定而晨星爲淋

나. 언해: ① 오시 더우며 치우물 못즈오며 뜨어슬 食식하며 飲음흐물 못즈오며 겨울이어든 溫온하고 녀름이어든 淸정하며 어울미어든 定딩하며 새베어든 省성하며 <13b>

② 옷시 더우며 치우물 못즈오며 뜨어슬 자시며 마시물 못즈오며 겨울이어든 ㅅ스케 하고 녀름이어든 서늘케 하며 어둡거든 딩(사리를 어디로 흠을 못즈와 덩타 말)하며 새베어든 성(주르심을 못즈와 슬피다 말)하며 <14b>

(46) 가. 원문: 孟子伊曰孩提之童伊無不知愛其親是淋及其長也爲也隱無不知敬其兄也羅爲時尼羅

나. 언해: ① 孟딩자즈 | 곶으샤디 孩히提데의 아히 그 어버이 스랑흠을 아디 못홀 리 업스며 그 즈라매 미치는 그 兄형 공경흠을 아디 못홀리 업스니라 히시니라 <10a>

② 링재 곶으샤디 히데(우음흐야 안음죽하다 말)의 으히 그 어버이 스랑흠을 아디 못홀 이 업스며 그 즈라매 미치는 그 형 공경흠을 아디 못홀이 업스니라 히시니라 <8a~9b>

3. 단어와 문장 구조

10행 16자본은 7행 15자본에 없는 단어를 추가해 언해하는 예가 보인다.

(47) 가. 원문: 此五品者隱天叙之典而

나. 언해: ① 이 다섯 品품은 하늘이 叙셔흐 典던이오 <13a>

② 이 다섯 가지 품은 하늘이 츠레흐 법던이오 <14a>

(48) 가. 원문: 朋友有信

나. 언해: ① 朋朋友우有유티신 벗이 밋브미 이십이라 <10b>

② 朋朋友우有유티신 벗과 벗이 밋브미 이십이라 <9b>

또한 두 언해본의 문장 구조가 다른 예도 있다. 아래 예가 그러하다.

(49) 가. 원문: 益者伊三友互損者伊三友尼友直爲_益友諒爲_益友多聞地面益矣互友便辟爲_益友善柔爲_益友便佞是面損矣羅羅

- 나. 언해: ① 더오니 세 가질 벗이오 해로오니 세 가질 벗이니 直直히 니를 벗히며 諒량히 니를 벗히며 드른 건 만히 니를 벗히면 더으고 便편辟_僻히 니를 벗히며 柔유_柔함을 잘 히는 니를 벗히며 便편佞_佞히 니를 벗히면 해로오리라 <10b~11a>
- ② 유익히 이 세 가질 벗이오 손해히 이 세 가질 벗이니 벗이 곧드며 벗이 밋브며 벗이 드른 것시 만히면 유익_益하고 벗이 편僻(위익에는 닉고 곳디 아니타 말)히며 벗이 유함을 잘히며(아침_益야 깃그?_柔에 공교롭고 밋브디 아니타 말) 벗이 편녕(입이 말히기는 닉고 듯고 본 진실_益함이 업다 말)히면 손해_損히리라 <10b~11a>

원문과 비교해 보면 원문 문장의 구조는 오히려 10행 16자본이 더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는 10행 16자본이 더 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설명 자체는 10행 16자본이 더 자세하다.

V. 결 론

이상에서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두 종류의 『동몽선습언해』를 비교하여 언해 양식상의 차이점을 밝혀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몽선습언해』의 두 언해본은 언해 양식에 차이가 있다. 7행 15자본이 직역에 가까운 언해인 데 비해 10행 16자본은 한자나 한자어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의역에 가까운 언해이다.

양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언어 사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7행 15자본은 문면에 한자를 많이 노출하지만 10행 16자본은 언해 부분에는 한자를 전혀 노출하지 않는다. 10행 16자본에서 한자를 노출하지 않고 원문을 언해하는 방식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한자의 음만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7행 15자본의 1음절 한자를 2음절 한자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7행 15자본에는 협주가 없지만 10행 16자본은 어려운 한자어에 협주를 달아 내용을 설명한다. 셋째, 10행 16자본은 한문 원문에 없는

말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7행 15자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사실 모두 10행 16자본이 의역의 모습을 보이는 데 기여한다.

참고문헌

<자료>

- 『童蒙先習諺解』 7행 15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奎 1535」, 마이크로필름.
『童蒙先習諺解』 10행 16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一簣 古 179 B149d」,
마이크로필름.
『童蒙先習』 7행 15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奎 233」.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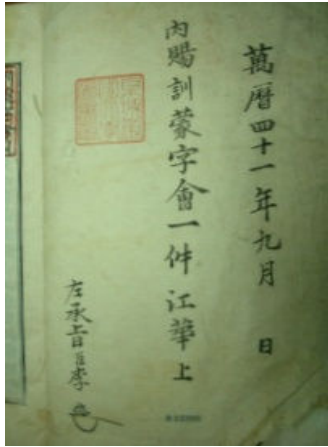
- 서울大學校奎章閣 엮음(2001),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語學篇 解説』, 태학사.
서울大學校奎章閣 엮음(2001),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語學篇 目錄·書誌』, 태학사.
安秉禧(1973), 중세 국어 연구 자료의 성격에 대한 연구, 『語學研究』 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安秉禧(1992), 11~27면에 ‘중세 국어 연구 자료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安秉禧(1976), 童蒙先習과 그 口訣, 『金亨奎教授 停年退任 記念論文集』,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安秉禧(1992), 438~461면에 ‘童蒙先習’이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安秉禧(1992), 『國語史 資料 研究』, 문학과지성사.
이응백(1975), 『國語教育史研究』, 新丘文化社.
張喜久(1994), 朝鮮時代 初等課程 教材內容 分析考察 - 童蒙先習을 中心으로 -, 『漢字漢文教育』 創刊號, 漢字漢文教育學會, 197~227면.
崔範勳(1986), 童蒙先習에 대하여, 『상서』 7, 한국장서학회, 117~124면.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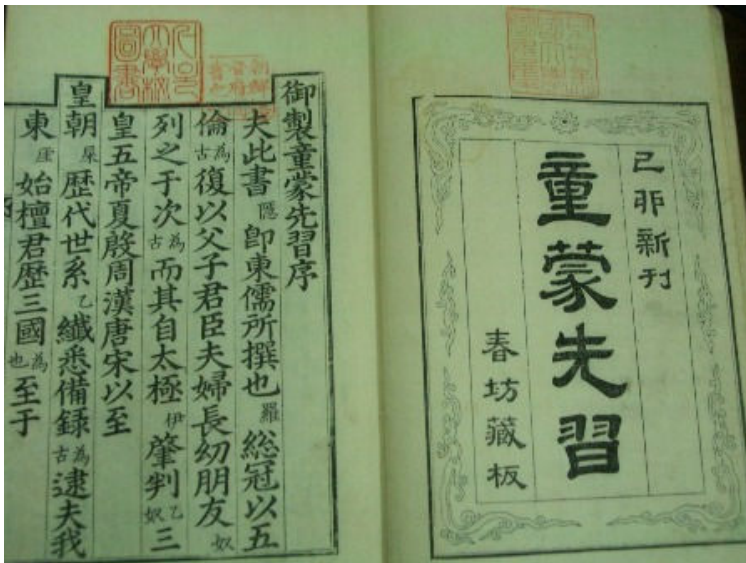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규장각 <http://kyujanggak.snu.ac.kr>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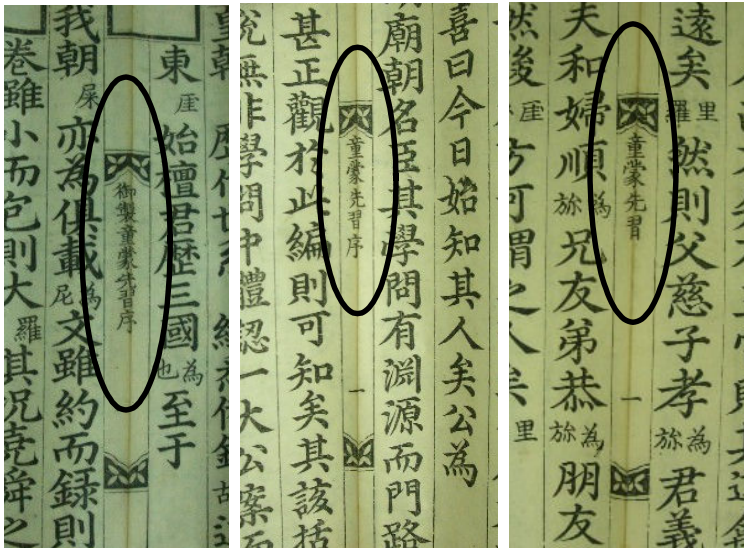
<사진 1> 내사기(內賜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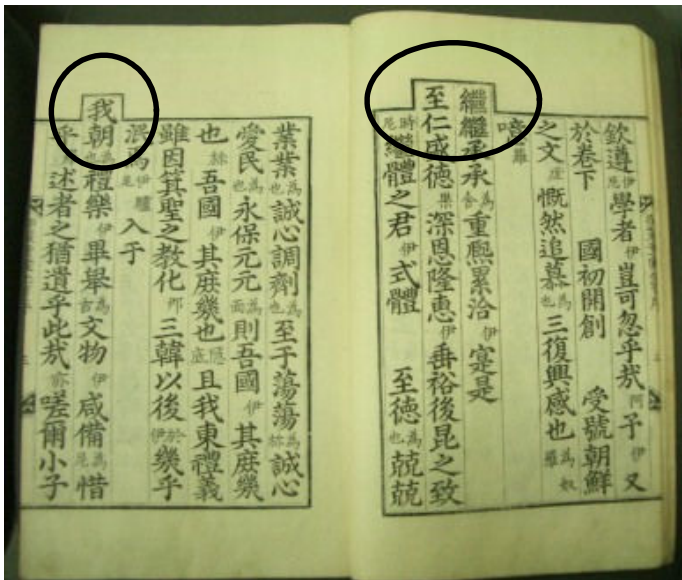
<사진 2> 장서인(藏書印)



<사진 3> 판심제(版心題)



<사진 4> 어제서(御製序)



<사진 5> 난상주(欄上註)

